

# 총리 인준은 與 ‘판정승’ 사드·추경은 野 ‘단일대오’

## 사안별 이합집산...더 복잡해진 여야 협치 방정식

대선 이후, 5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안별로 뭉치거나 갈리면서 ‘협치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제1야당인 한국당(107석)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 5당이 이슈에 따라 손을 잡거나 등을 돌리는 ‘이합집산’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여야가 풀어야 할 협치 방정식의 주요 변수는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예산안 등의 무난한 통과를 물론, 정권 초부터 독주한다는 비판을 불식하려면 두 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반대로 한국당은 두 당이 보조를 맞춰줘 강력한 대야권전선 선수를 굳히면서 힘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안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효과적인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두 당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의미있는 생존을 하려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전략적 밀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총리 인

## 장관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 캐스팅보트 몸값 뽐

## 국민의당·바른정당에 달려

준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당이 함께 손잡고, 한국당이 소외되는 구도가 짜였다. 결과는 여당의 판정승이었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호남 총리’ 인준에 협조했고 바른정당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쟁점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다.

당장 7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를 두고서는 국민의당이 ‘김상조 불가론’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리 인준 때와 유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같은 날 시작하는 김이수 헌법재

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을 맞춰줄 것으로 점쳐진다.

법보수 정당한 두 당은 김 후보자가 2014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한 사실을 중대한 결격·부적격 사유로 본다. 그러면서도 5·18 시민군 재판 참여 전력을 계속 부각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자극해 국민의당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추경과 사드 문제에서는 반대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동전선을 취하고 민주당이 소외되는 분위기다.

여당은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국가재정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반대 뜻을 표한 상황이다.

국회로 옮겨온 ‘사드 보고누락’ 파문도 마찬가지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인사청문회 국면 전환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외교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사드·추경 문제의 국회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각 당의 고차원 협치 방정식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년 칼날 위 긴장감으로 살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억을 더듬고 있다. /연합뉴스

# “각종 의혹 해소” “국회 보이콧 검토”

## 김상조 후보자 7일 보고서 채택 논의...통과·낙마 놓고 여야 대치

국회가 지난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오는 7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4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대립각을 세웠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입장을 밝히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담긴 국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병헌 정부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정부라인 채널을 통해 야당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며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

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김 후보자에 게 무차별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은 명백히 해소됐다”며 “야당이 존재감을 세우기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멈추고, 김 후보자의 청문결과 보고서 채택에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김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자격 측면에서 상당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정말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아직 야겨울 문제이지만,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도 국회 보이콧까지도 검토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는 7일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

는 국회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적격’ 의사를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정부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을 야당 위원과 김 후보자 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고위공직 원천배제 5대(비리)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로 규정하고 위장전입, ‘다문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고교 영어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문제 등을 정조준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지난 20년간 칼날 위에 있는 듯한 긴장감으로 살았다”는 말로 다소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송구스럽다”고 계속 몸을 낮추면서도 “큰 결격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청문회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정기획위 文정부 100대 과제 주내 최종안 도출

## 부처별 업무보고 마무리

## 분과별 전문가 토론회 돌입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국립외교원·제주평화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기관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로 정리해 제시하기로 했다.

국정위 박경은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의 최종 목표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룬 틀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 국정비전·프

레이م 태스크포스(TF)’는 5일 열리는 전체 회의에 ‘5대 목표·20대 전략·100대 과제’ 1차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는 최종안을 도출하고, 내주 초에 청와대 및 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동안의 성장 중심주의에 거리를 두며 고용·복지와 함께 가는 성장을 강조한 만큼 5개년 계획에는 이런 국정운영 철학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이제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맞춰 정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소통채널이 됐다”고 자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러나 미흡한 점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와 지나치게 각을 세웠다는 비판이나 공직자들의 반성을 강조하면서 사기를 꺾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출범 2주째를 맞아 특정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지방공약 ▲국가비전 프레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수립 ▲국정과제 재정수립 ▲인선검증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등 5개 태스크포스(TF)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방공약 과제는 사회·경제 등 분과 위별로 흩어져 있으므로 TF가 이를 한 데 모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분과가 주관하지만 4차 산업혁명 등을 다루는 경제2분과도 함께 참여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당신은 어떤 미래를 꿈꾸십니까?

# ENJOY FUTURE



##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 추가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 2017. 5. 15(월) ~ 7. 14(금) 18:00

합격자 발표 | 2017. 7. 28(금) 15:00

입학 전형 | 2017. 7. 22(토), 필답고사(모의토익) / 면접고사

개강일 | 2017. 8. 28(월)

기초과목 수업기간(K-MBA) | 2017. 8. 14(월) ~ 8. 26(토)

학위과정	모집분야	모집인원	비고
경영전문석사(MBA)과정	Global MBA(주간, 야간 및 주말)	00명	영어 및 한국어
	K-MBA(야간 및 주말): 한국형 MBA	00명	한국어
	계	100명	

문의전화 | 062-530-1501~2 자세한 내용은 경영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mba.jnu.ac.kr> 참조